

양돈협, 홍문표 국회의원에 감사패 전달

해양배출 부가세 면제 등 양돈산업 발전 공 기여

홍 보 부



◀ 대한양돈협회(회장 김동환)는 지난 7월 23일 홍문표 국회의원을 방문하고, 해양배출 부가세 면제 등 양돈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양돈협회장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했다.(사진 왼쪽부터 대한양돈협회 한흥재 흥성지부장, 김동환 회장, 홍문표 국회의원, 성실제 전 예산지부장)

대한양돈협회(회장 김동환)는 지난 7월 23일 국회 의회회관을 방문하여 홍문표 국회의원을 방문하고, 해양배출 부가세 면제 등 양돈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양돈협회장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했다

김동환 양돈협회장은 해양배출 부가세 면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준 홍문표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도축세,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등 양돈산업 현안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했다.

이에 홍문표 국회의원(한나라당, 흥성, 예산)은 “양돈인들이 주신 과분한 상에 감사하다”며, “국내 축산업에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양돈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돈농가들이

FTA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”며, “특히 한·EU FTA를 통한 국내 양돈농가들의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”며, “피부에 와닿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홍문표 의원은 평소 양돈산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제도개선에 힘써왔을 뿐만 아니라 올 초 국세청이 가축분뇨 해양배출 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려는 방침을 세우자 양돈협회와의 공조를 통해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해양배출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철회를 공식 요구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표출해 가축분뇨 해양배출 부가가치세 면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양돈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. **양돈**